

최근 공화국의 곳곳마다에 공원, 유희장들과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기지가 일떠서 로라스케트바람, 승마바람, 스키바람 등이 일고있다. 전자오락바람도 그중의 하나이다.

개선청년공원, 룡라인민유원지에 있는 전자오락판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여기는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위치한 전자오락관. 이곳에서 일하는 한해경봉사원은 어느때도 그렇지만 일요일, 명절날같은 휴식일에는 손님이 오라기제에 한번 앉아 보기 험치 않을 정도로 붐빈다고 말한다.

전자오락관을 즐겨찾는 단 팔손님들은 역시 어린이들



웃음가득 넘쳐나는 룡라인민유원지 전자오락관

과 청소년학생들이다. 이곳에는 승용차경주, 판스키경주, 오토바이경주, 사냥경기 등 수십여종의 각종 전자오라기제들이 갖추어져있어 무엇이든 다 해보고싶어하고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탐구심이 강한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어느 오라기제나 한번 마주앉으면 좀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이들에게. 운전대를 잡고 화면에서 깜찍한 차를 몰고 가면서 갖

가지 《보물》들을 먹어치우는 오락은 주로 유치원어린이들이 좋아한다. 차를 몰면서 마주오는 《보물》들을 따먹는 재미란 여간아니어서 하고 또 해도 성차하지 않는다.

승용차, 오토바이경주오라기제들앞에도 학생들이 모여있고 오락이 흥성해. 화면에서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민첩하게 피해가며 앞선 승용차나 오토바이들을 따라앞서야 하는 오락은 보기와는 달리 속련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의 이마에 빠질빠질 땀이 내뿜는데 옆에서들 더 속상한지 공연히 땀씩인다.

아이들에게는 뛰니뛰니 해도 총쏘기오락이 제일인듯싶다. 원시림속에서의 총쏘기, 사냥경기와 관련한 오락기제들에서는 아이들이 련이어 울리는 총성이 그칠줄 모른다. 정황에 따라 권총, 자동보총, 기관총, 미사일 등을 바꾸어가며 나타나는 《적》비행기들과 잡수함, 짐승들을 쏘아맞힐 때의 통쾌함을



천연기능성건강식품 — 덱스트린칼시움

《만성적인 소화기장애로 오래동안 고생했는데 덱스트린칼시움을 복용한지 며칠 안되어 소화가 잘 되고 먹은 것이 속 내려가는 것이 알려졌다. 10년 묵은 체증이 꼭 떨어졌길다.》

《여드름제거에 덱스트린칼시움이 좋다고 해서 써보았는데 신기할 정도로 깨끗이 없어졌다. 이전보다 얼굴피부가 윤택해지고 더 예뻐졌다고 사람들마다 말한다.》

... 최근 평양령봉무역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천연건강식품—덱스트린칼시움은 좋은 작용을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사용후 불과 2~3일만에 즉시적이며 정확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것이 덱스트린칼시움의 우점이라며 누구나 입을 모으고있다.

덱스트린칼시움은 농마를 무기산(또는 효소)으로 부분물분해하여 만든 덱스트린칼시움아미노산, 유기산과의 혼합물이다. 덱스트린은 수용성식용성유로서 사람의 몸안에 들어가 위에서 소화흡수되는것이

아니라 대장에 도달하여 장내 유용성균인 비퍼두스균을 선택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비퍼두스균이 증식되면 몸안에서 발암물질, 로화축진물질 등 유해물질의 생성이 억제되고 소화관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인체의 전반적인 생체방어기능이 개선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덱스트린을 A-1급, 특정보건식품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늘 섭취하여야 할 가장 우수한 장수식품으로, 영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감자의 농마를 생물공학화방법으로 가공처리하고 여기에 천연생리활성첨가제들을 섞어 특색있는 기능성보건식품을 만들어냈다.

연구사들인 리형순, 정선녀를 비롯한 평양령봉무역회사의 연구사들은 건강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감자의 농마를 생물공학화방법으로 가공처리하고 여기에 천연생리활성첨가제들을 섞어 특색있는 기능성보건식품을 만들어냈다.

이번에 개발된 덱스트린칼시움은 덱스트린, 단백질과 함께 칼시움, 망간, 코발트



등 30여가지 광물질을 비롯하여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들을 조화롭게 함유하고있어 항산화, 항균 및 항비루스, 혈압안정, 독풀이, 항방사능 등의 약리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덱스트린칼시움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음식물의 소화흡수가 잘 될뿐아니라 유기체의 전반적물질대사기능이 현저히 강화되며 골소송증, 식물신경실조증, 심장성질환, 동맥경화, 관절염, 소대장염, 비만, 알레르기, 기관지천식, 로화방지, 방사선피해후유증을 비롯한 질병들의 치료에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밖에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어린이들의 키크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천연기능성건강식품—덱스트린칼시움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우 리

사람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우리라는 말을 흔히 쓰고있다.

나와 너를 가리키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제도 등 우리라는 말의 쓰임은 아주 다양하다.

우리라는 말은 사적소유가 생겨난 먼 옛날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울타리》의 동의어인 《울》에서 파

고 무엇에 비기라.

재미있는것은 《전자오락은 아이들이나 하는것》이라며 집값을 빼던 어른들이 언제 그랬든가싶이 흥미있는 전자오락의 세계에 너도나도 뛰어드는것이다. 처음에는 《한번만...》하던 사람들이 《허, 생각과는 다른데...》, 《정말 재미있다.》며 3D비행전, 격술, 미래의 전쟁과 같은 전자오라기제들에 련이어 옮겨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자오락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 평양시 중구역 창전소학교 3학년 3반 윤성순학생은 《방금 판스키경주오락을 하면서 얼마전 마식령스키장에서 보낸 줄겨운 스키야영의 나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대 익힌 스키라기솜씨를 판스키경주오락을 하면서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고 말한다.

평양강철공장 노동자 박남철은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도 경마오락을 실컷 해보았다. 꼭 미림승마구락부에 온것만 같은 심정이다. 매일이라도 오고싶다.》며 웃었다. 즐거운 탄성과 아쉬움, 귀맛좋은 총소리와 떠들썩한 웃음소리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전자오락관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머리비듬을 쉽게 없애려면

◆ 콩 50g, 흰 버드나무뿌리가루 30g을 물 1ℓ에 넣고 10분동안 끓인다. 식은 다음 퍼라하여 찌꺼기는 버리고 천연삼프를 얻는다. 이 천연삼프로 2주일동안 매일 저녁 머리를 씻는다. 보다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해 머리를 씻기 전에 1~2분 동안 손가락으로 머리안마를 한다.

◆ 가정에서 손쉽게 비듬을 없애려면 아스피린 30알을 물 1ℓ에 풀는다. 머리를 깨끗이 씻은 다음 이 아스피린용액으로 머리피부를 적시고 비비지 말고 5분정도 있다가 물로 씻는다.

본사기자

된 장 과 료 리 가 공

된장에는 기름질, 비타민, 단백질뿐아니라 리놀산, 레시틴, 사포닌과 같이 영양물질이면서도 약리성분이기도 한 물질들이 들어있다.

된장은 남새를 더욱 부드럽게 하고 구수한 맛을 내며 빈내를 비롯한 잡내들을 없애며 음식맛을 돋군다.

국에 된장을 넣을 때에는

국이 거의 끓었을 때 풀어넣고 한소끔 끓여오르면 골 먹어야 재맛이 난다. 된장을 나물로리나 고기, 물고기요리에 적절하게 리용하면 원재료의 맛과 영양가치를 훨씬 높이므로 식생활에 다양하게 리용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산 당 화 (2) 글 전 철 호 , 그림 김 윤 일

《리정암이 제가 부사를 해먹은 연안성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어디 실컷 해보라지, 몇날이나 견디나. 내 술한 재물을 가지고있으면서서도 그 잘난 서울놈들의 밑에서 굶신대며 이 잘난 벽란도의 도승집이나 해먹을줄알았어? 난 왜인을 찰고서 해도 명명 큰소리를 쳐고 행세하며 량반답게 잘 살아볼테다.》

《여보, 왜군이 참말 이기긴 이길걸 가지고 이러는것이 아니까?》

《요런 방정맞은 소리. 건 하늘의 뜻이야. 라고난 싸움군이 일본사무라이들인데 그것들이 20여만의 대군으로 수륙병진해와. 그런데 관군은 고작 2만이나 되겠는지. 두고보라구. 명년 이맘때면 명나라의 도움 얻경(배이징)까지도 함락되지 않나.》

《그래도 양자동, 풍류동, 한우물마를 백성놈들은 싸운다고 저 개성으로 밀려가는데?》

《삶은 소대거리 옷다 꾸레미 러질라. 그 무식한 가난뱅이들이 뭘루 싸운데? 이제 제발로 기여나오지 않나 보라.》

《그렇긴 한데... 량군님은 언제 어떻게 개성에 다시 들어가실라우?》

《그런진 함부로 묻는게 아니야. 하여튼 서울에 풍신수길의 부고(봉행집정관)인 석전삼성이 들어왔다는데 내 그 량반과 통할언줄을 쥐고있어. 그러니 개성은 내것이나 마찬가지로지던.》

《아유, 그럼 나도 이 사실노릇을 끝장낼수 있을가?》

《또도, 어렵히... 임잔 이쁜이년을 잘 구슬려서 창우를 쫓아가지 않게 해야 해.》

이쁜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소름이 끼쳤다.

《고년은 왜?》

백제는 갑자기 양갈진 소리를 쳤다.

《잇! 이진 밤말도 쥐가

듣는다는걸 몰라?》

《헐, 밤낮 고년 람을 내는거! 난 고년이 당신 몸종을 사는데 싫어. 고년이 꼬리치는걸 보면 꼭 가랑머릴 찢어죽이 고보인.》

《차차, 이진 상스러운 말을 랑랑! 이와 큰 고길 낚으려면 미끼가 커야 한다는걸 몰라? 한승이 꽃처럼더 어쁜 이쁜이 첫 앞세워야 왜장이 날 크게 신임할게 아니냐.》

《아유, 그러게! 그럼 고년을 노리개로?》

《취! 아무래도 고 임배문에 큰일 망치겠다.》

제가 섬기던 주인놈의 배속을 우연찮게 밀바라까지 들여다본 이쁜은 한동안 멍청해 서있었다.

그날 밤 이쁜은 뜬눈으로 새날을 맞았다. 이쁜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이쁜은 드디어 독한 마음을 먹었다. 고려쳐러 설죽

화처럼 전장에서 칼을 휘둘러 외적을 무찌르지는 못해도 이 역적놈의 총계를 몰래 알아내어 고향땅을 지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리라. 물론 이 길이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하는 길인줄은 안다. 그렇다고 이 결심은 창우한테도 말해줄수 없다.

철썩— 철썩— 이쁜은 한숨을 쳐다보았다. 총총했던 별들이 깜빡이며 하나, 둘, 사라지고있었다.

《이쁜아— 이쁜아—》 어둠속에서 친듯 한 목소리의 입자가 나루배를 바짝 신창기슭에 들이대며 거둬소리쳤다.

보나마나 천듯 한 목소리의 입자는 이 벽란나루에 혼자 남은 배사공할아버지다. 이 나루에다 래를 물었다는 할아버지는 굶었음직에 열병으로 처와 아이들을 한낱한시에 다 잃었다는데 오늘까지 한뼘 황백치의 밑에서 나루배를 곤다. 언제 배에 올랐겠는지 창우가 《할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소이다.》하고 소리치며 배에서 뛰어내렸다. 이쁜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오는 검은 형체를 향해 소



에익 더러운 놈, 저희 년놈들은 화로를 끼고앉아 고기추념을 하면서 창우를 빨리 건너보내라고 야단칠이다.》

사공로인은 푸념을 하며 닻을 끌어올렸다. 창우는 꺾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 주제103(2014)~주제105(2016)학년도 제48기 개학식을 4월 14일 평양에서 진행하며 방송강의는 4월 16일부터 합니다.

* *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1) 만경대가문의 숭고한 가풍

2)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남녘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이다

강의날자: 1) 주제103(2014)년 4월 16일

2) 주제103(2014)년 4월 16일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공민왕릉의 무관상과 문관상

평양민속공원에는 개성시 해선리에 위치하고있는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에 있는 무관조각과 문관조각의 모형도 있다.

무관조각과 문관조각은 선새김을 위주로 하면서도 야외기념물로서의 립체감을 잘 살리고있다.

특히 문인과 무인으로서의 직업적특성은 물론 젊은이와 늙은이의 성격상특징까지도 잘 나타내고있다. 인물조각들의 높이는 대체로 2.3m로부터 2.5m로서 야외조각으로서의 그리크지 않으나 그 형상에서 풍기는 웅장성과 탄력있는 기백 등은 매우 개성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조각들은 야외공간속에 놓여지는 기념조각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잡고 동작을 단순화함으로써 조형률밖의 선명성을 보장하였다. 인물조각가운데서도 무관조각이 좀 더 잘 된 조각이다.

체구에 비해서 다소 커진 얼굴과

발은 목, 얼마간 굽어진 몸집과 약간 길어진 상반신의 처리 그리고 관복을 비롯한 중요한 골격마디들의 강조 및 무뚝뚝한 표정, 온 몸을 완전히 무장한 갑옷의 치밀한 세부묘사 등은 무관의 엄격한 성격을 강조하고있다. 한편 무관의 성격형상과 대조되는 문관조각은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에 적당히 드러낸 목, 길게 흘러내린 옷주름과 부드러운 얼굴표정 등의 표현이 예지로우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물조각의 특성이 처리의 간결성, 명확한 표현 및 웅장성을 잘 살리

고있다. 이와 같이 공민왕릉의 인물조각은 이 조각제작에 참가한 조각가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이고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능숙한 돌조각술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도식으로 되어있던 무덤조각형상의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였다.

공민왕릉의 무관상과 문관상은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돌사람조각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의 하나로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엿볼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고영숙



와 더 힘껏 내달렸다. 단숨에 감나무들이 늘어선 선창가의 길을 예뻐야 산신당같은 황백치의 첩네 집으로 뛰어갔다. ...

× 이쁜은 배에 오르는척 하다가 힘껏 배를 떠밀었다. 《아니 이쁜아, 이진 뭐냐?》

《할아버지, 전 갈수 없게성애 주둔한 왜군의 장수인 자이도는 적철우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애송아지고기점을 저가락에 꿰어 들고서 백성화로는 그 무슨 장교로 박되니 다른 손으로 두들기며 빈득을 울리는 소리를 냈다.》

《오, 황상! 가을바람이 술술 부는 이 벽란도나 경치가 좋다.》

황백치는 왜인마냥 머리를 감작거리며 대꾸했다. 《예예, 경치야 두말하면 잔소리일쵸. 고려편 여기로 온 세상이 구름처럼 밀려들었다고 하오이다. 더우거나 이런 날에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조린다면...》

《아아, 황상!...》 보통기인데 어찌나도 몸이 가로 퍼졌는지 흠사 절구통을 눌러놓은듯 한 왜장은 눈 밑을 부라리며 돼지먹마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말하자선 그제나 아니다. 이 벽란도가 연안성에 도사린 리정암의 목을 조이는 술가미나 적중하다는 그 소리다. 해주를 가로라고앉은 우리 3진의 구로다 나가마사(후전장성)가 힘겹게 연안성과 싸울 때 나 사이또는 감쪽같이 리정암의 뒤를 치고 그자의 목을 따자는거다.》

황백치는 왜장이라면 목소리부터 먹을 따는듯 커야 하는가보다 하고 생각하며 《예에, 거야 어부가 있겠소이까.》하고 발라맞추었다. 사이또의 곁에 착 붙어서 술시중을 드는 백제는 방금 귀를 잡아먹은 고양이 주둥이같이 새빨간 입술을 뾰족 내밀고 술잔을 받쳐들었다.

《어서 드시와요. 장수들한텐 이 애송아지가 제일이라는데...》

《좋은것이다.》 사이또의 메기입이 귀밑으로 돌아갔다. 백제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사이또의 어깨우에 하얀 손을 척 걸치고 저만치 떨어져서 승어회를 치느라 땀을 흘리는 이쁜이에게 소리쳤다.